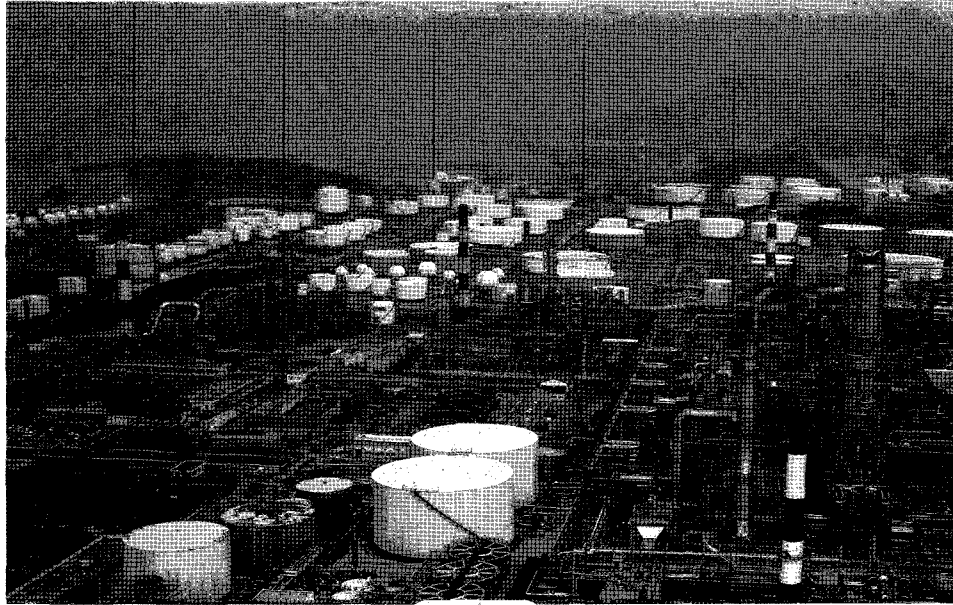


종합에너지서비스
업계의 리더를
지향하며

LG칼텍스정유(주)



LG칼텍스정유는 1967년 5월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로 출발한 이래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회사 성장의 궤적을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하여 왔다.

설립 초기의 석유와 윤활유 사업에서 출발해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온 LG칼텍스정유는 2000년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를 새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력, 도시가스, LNG, 유전개발, Convenience Retail, e-Business 및 대체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산업의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서비스 업계의 리더를 지향하고 있다.

■ 국가 경제발전의 심장

하루 원유처리 능력 6만 배럴 규모의 정제시설로 시작한 LG칼텍스정유는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하루 65만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시설을 갖추고 안정적인 국내 석유제품 수급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90년대 중반 하루 8만 5천 배럴 규모의 방커C유를 정제하는 중질유 분해 시설과 하루 19만 배럴규모의 등·경유 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을 완성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최첨단 자동화설비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은 선박, 송유관, 유조화차, 유조차량 등으로 출하된 후 전국 주요지역에 위치한 중간 저장기지인 저유소를 거쳐 최종 판매처로 운송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국제품질인증 ISO 9002의 엄격한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95년 1월 LG칼텍스정유는 국내 최초로 휘발유에 브랜드 개념을 도입, 최첨단 엔진보호 휘발유를 출시했다. 당시 LG칼텍스정유는 업계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휘발유의 품질혁신을 시도하여 국내 휘발유시장에 엔진보호 휘발유와 브랜드 휘발유 바람을 일으킨 진원지가 되었다. 또 99년 10 월에는 보다 향상된 품질의 휘발유 SIGMA6를 출시하는 등 휘발유 품질의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 주유소를 생활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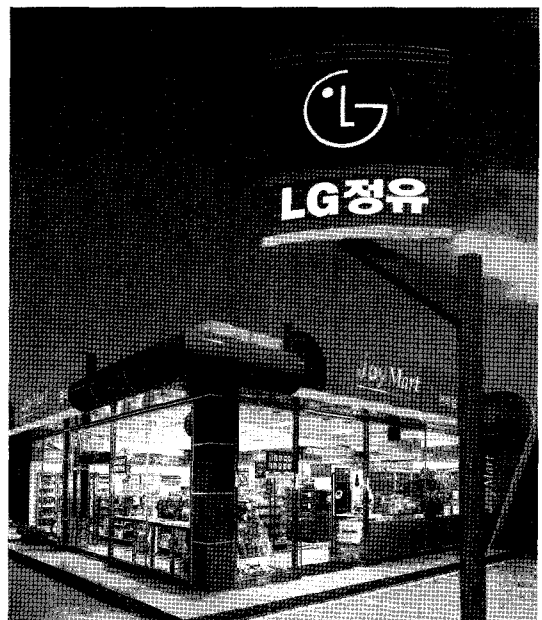
LG칼텍스정유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2,800여 개의 주유소 및 220여 개의 충전소를 갖추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주유소 서비스 실행지침인 <주유소 표준운영기준>을 제정,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보상을 통해 주유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미스터리 운전자 조사를 실시하여 계열주유소를 측정함으로써 주유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여성 모니터 제도를 시행하여 여성 운전자의 섬세한 눈을 통해 LG주유소의 시설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경영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주유소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가고 있다.

또 고객의 주유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누적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SIGMA6 보너스카드> 서비스를 비롯하여 제휴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8년도에 <SIGMA6 보너스카드>를 출시한 이후 회원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회원수 850만명을 돌파했으며, 2002년도에는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마케팅에 반영함으로써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LG칼텍스정유는 주유소를 주유, 세차, 부분(경)정비 서비스, 윤활유 교환, 생필품 구매, 일상업무 처리 등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으로 바꾸어 선진국형 라이프스테이션(Life Station)을 실현하고자, 96년 국내 최초로 주유소병설 편의점 조이마트(joy Mart)를 개설하고, 94년 부분(경)정비 프랜차이즈인 오토오아시스(auto Oasis) 사업을 전개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고객의 요



외원사 소개

구에 부응하기 위해 맥도날드를 비롯하여 서브웨이, 농심가라, 도미노피자, 맘스터치, KFC 등 유수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점포 안의 점포(Shop-in-Shop)' 또는 독자매장 운영 등의 형태로 이들 매장을 결합하여 매출 및 수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한편 96년 5월에는 회사규모와 향후 발전계획에 걸맞는 회사 이름과 주유소 외관 디자인을 혁신하는 CI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LG칼텍스정유는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특히 주유소의 디자인을 혁신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환경보전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도전정신을 최첨단 하이테크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 세계적 규모의 방향족 공장과 폴리프로필렌 공장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방향족 공장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고품질의 벤젠, 톨루엔, 자일렌, 파라자일렌 등의 석유화학 기초 원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1990년 4월 미국 UOP의 기술을 도입해 연 2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과 연 30만톤 규모의 방향족 공장을 건설하여 방향족사업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이후 급변하는 석유화학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방향족 및 파라 자일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1995년 제2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1997년 제2 납사접촉개질 시설 및 2000년 제2 방향족 추출 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연 70만 톤의 파라자일렌 생산능력을 포함하여 연 175만톤의 방향족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성장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GTC사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제2 방향족추출시설을 완공

함으로써 휘발유의 벤젠 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폴리에스테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파라자일렌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엑스모빌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3 파라자일렌 공장을 증설하고 2003년 4월부터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LG칼텍스정유는 연 105만톤의 파라자일렌 생산능력을 포함한 연 200만톤의 방향족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일 방향족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폴리프로필렌 공장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이 탁월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8년 유동층 기상 중합 방식의 Unipol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폴리프로필렌 <하이프린>을 연 18만톤 생산하고 있다. 특히, 윤활유 용기용 원료, 생수병용 원료, 발포용 원료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동차 내장재용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개발해 IR52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국내 폴리프로필렌 업계의 기술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LG칼텍스정유는 하루 3,300배럴의 윤활유 제품과 연 3,000톤의 그리스 제품을 생산하여 약 170종에 이르는 고품질의 자동차용, 선박용, 산업



용 윤활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LG칼텍스정유 윤활유 제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루보트' 용기에 담겨 판매된 후 다시 수거되어 재활용됨으로써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도시가스 및 전력사업에 참여

LG칼텍스정유는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와 전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2000년 9월에 서라벌도시가스를 설립하여 경주시와 영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어 2001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를 공급권역으로 하는 해양도시가스를 인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강남도시가스와 경남도시가스의 지분투자로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LNG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가스공사 민영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발전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최초로 민자발전회사인 LG에너지(주)를 설립하였고,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설비에 대한 공개 입찰경쟁에서 인수자로 선정되어 LG파워(주)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10월 설립된 LG에너지는 충남 당진군 아산 국가공업단지내 부곡공단 12만 5천평에 50만 k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001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전과의 전력매매계약을 통하여 전량 판매되고 있다.

2000년 6월 설립된 LG파워는 95만kW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전과의

전력매매계약을 통하여 전력을 판매하고, 발전소와 자체보일러에서 생산한 난방열을 안양 및 부천 등 주변지역 약 20만 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 대체에너지 및 첨단 연구개발

LG칼텍스정유는 고객들의 보다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86년에 설립된 기술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1998년 12월에는 대덕단지내에 대단위 에너지 전문 연구소인 중앙기술연구소(Value Creation Center)를 완공하여 한차원 높은 기술 개발과 다양한 첨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의 Value Creation Center는 그 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생산공정 최적화 및 촉매 성능 개선 연구, 환경친화적 연료유 개발, 고분자 신제품 및 신용도 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LG칼텍스정유는 대체에너지 개발의 핵심인 연료전지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LG칼텍스정유는 2000년 11월 연료전지 전문 회사인 (주)세티를 설립하였으며, 지난 해 노트북에 장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낳았다.

■ 환경안전에 대한 최우선 투자

LG칼텍스정유가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환경과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LG칼텍스정유가 항상 최우선의 경영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환경과 안전이다.

LG칼텍스정유는 종합 환경 마스터플랜에 의해 업계 최대 규모의 분해 및 탈황시설과 전기집진시설, 폐수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24시간 원격제어 통제시

스텝, 출하지역에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Oil Collector Pan System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 결과 환경대상 수상, ISO14001 국제환경인증 획득 등으로 환경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업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국내 정유사를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안전에 대한 기록도 남다른 게 뛰어나다. 30차례에 달하는 500만인시, 200만인시 무사고 기록은 물론 2년 연속 국제산업안전콘테스트 1위라는 국내기업 초유의 성과를 거두었다.

■ 각종 사회공헌 활동

LG칼텍스정유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매년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기전인 (LG정유배프로기전)을 후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바둑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체육진흥을 위해 여자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여자배구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전통의 명가로 평가받고 있는 LG정유 여자배구단은 1991년부터 99년까지 한국 배구 슈퍼리그 9연패의 금자탑을 쌓는 등 국내 여자배구대회를 석권한 바 있다.

한편, LG칼텍스정유는 국내 기업 최초로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장학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 가물지역 식수보내기 운동, 수해지역 연료무상 공급, 신장기금 전달, 장애인기금전달 등 뜻있는 사업마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 왔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

LG칼텍스정유는 대외개방과 자유화로 대변되는 석유산업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구조혁신을 통한 총체적 원가경쟁력 확보와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세계 초일류 의식의 제고만이 무한경쟁 상황 속

에서 LG칼텍스정유가 21세기에도 세계 석유업계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여 생산에서 물류, 영업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 모든 조직 및 인원이 업무수행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들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를 완료한 바탕 위에 CRM, SCM 등 각종 혁신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성 향상 및 원가절감활동이 집진적인 개선 차원을 넘어서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99년 5월 정유업계 세계 최초로 '6시그마'를 전사적 차원의 전략적 혁신활동으로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LG칼텍스정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익성 및 현금흐름 중심의 질적 경영이 IMF 관리체제 이후 더욱 빛을 보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국내 정유업계에서 신용도 최고 기업이다. 한국신용정보가 평가한 LG칼텍스정유의 회사채 신용 등급은 지난 99년말 이후 지금까지 줄곧 'AA'다. 또한 재무구조를 보면 LG칼텍스정유의 경쟁력을 공감할 수 있다. 91.2%의 낮은 부채 비율은 국내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LG칼텍스정유는 IMF 관리체제 이후 세계 2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와 S&P사로부터 동시에 투자적격으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민간기업이다.

또한 LG칼텍스정유의 이같은 높은 신용도는 총체적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 및 현금흐름(Cash Flow) 중심의 경영, 최고 수준의 질적 경영, 그리고 품질 향상 및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세계 초일류가 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노력 등을 반영하여 국제신용기관들이 내린 평가이다.